

- 첫번째 기록 : 참사에 대하여

대학에 입학하고서 처음으로 얻은 알바 자리였다. 최저임금이지만 사대보험도 되고, 매니저도, 좀 툭툭거리긴 하지만, 음료제조가 서툴다고 혼내거나 핀잔 주는 일 한번 없이 매번 묵묵히 시범을 보여 주는 착한 사람이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같은 학교 새내기가 대부분이었다. 3주쯤 전에 아내가 항암치료를 시작했다며, 퇴직 중에 급히 일자리를 구해 들어온 슬픈 눈의 할아버지도 있었다.

일주일 좀 안 되게 일했을까, 일상이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카페 건물 맞은편 고시원 방에서 나와서 출근하고, 기계처럼 안내 멘트를 읊고, 금전거래와 음료제조와 뒷마무리, 맡은 타임에 손님이 많지는 않아서 여유로웠고, 이따금씩 홀을 담당하는 여학생인, 한 살 어린, 알고 보니 같은 과 동기였던 주민 씨가, 카운터 뒤로 와서 수다 떨다 갔고, 말수 적은 슬픈 눈의 할아버지가 교대하러 오시면 퇴근해서, 인근 다른 카페에서 책을 보거나, 핸드폰으로 동영상 이것저것 찾아보거나, 친구들 불러내서 밥 먹고, 해가 뜰 때쯤 고시원 한 뼘 방으로 기어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해가 뉘엿해질 때쯤 다시 출근하고, 기계처럼 안내 멘트를 읊고, 금전거래와, 음료제조와, 뒷마무리, 기계처럼, 안내 멘트를 읊고, 금전거래와, 음료제조와, 뒷마무리 :|| 의 일상이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일주일 좀 안 되게 일했을까, 생활에 리듬이 잡히고, 일하는 공간과 사람들이 막 익숙해질 즈음, 그러니까 낯설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초창기의 얼떨떨한 표면장력이 막 걷혔지만 무미건조나 권태로 접어들 정도는 아직 아니던 시점에,

건물이 무너졌다.

정확히 기억하는데, 일요일 새벽 03시 01분이었다. 술이 딱이 되어서 창가 자리에 첩퍼덕 눌러앉은 회사원 두 명이 주문한 카페라떼 (아이스, 스몰, 03천 100원, 매장에서 드시고 가세요?)를 막 제조해 둔 차였다.

“불러도 안 올 것 같은데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 발 아프다...” 라며, 주민 씨가 내 뒷쪽의 스툴에 앉아 앞치마를 두어 번 털었다. 툭, 툭.

카페라떼를 트레이에 올려 놓고 뒷눈질을 했는데, 주민 씨 손은 그대로 있는데, 툭, 툭 소리가 계속 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점점 커져서, 툭, 툭, 투둑, 툭, 광...

주민 씨 눈은 휘둥그레졌고, 땅은 점점 진동하더니 -

희뿌옇던 시야가 더욱 새하얗게 변하고 정신이 들었다.

눈 앞에서 형광등이 비스듬히 깜박, 깜박, 코에 닿을 정도로 눈 앞에서, 깜박이다가 꺼졌다. 귓가의 먹먹한 백색소음을 뚫고 돌부스러기 쏟아지는 소리와 꿈결같은 사이렌 소리, 비명과 신음 소리가 아주 머나먼 곳에서 흘러들어오듯 들렸다.

다리의 둔탁한 통증이 인식되기 시작해서 고개를 숙였을 때 비로소, 팔뚝만한 철근에 짓눌린 내 무릎과, 여전히 휘둥그레한 표정의 뜬 눈을 채 감지 못한 주민 씨의 피투성이 머리와, 아크릴이 휘고 쪼개진 채 여전히 희멀건하고 불그스름한 빛을 발하는 거대한 카페 체인점 로고 간판이 눈에 들어왔고, 그제야 나는 이 비명과 신음이 나의 입에서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고서 한동안 다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은데, 정신을 다시 차렸을 때에도 그 장면은 그대로였고, 다시 정신을 잃었다 차렸다, 다시 까무라쳤다가 깨어나기를 몇 차례 했던 것 같다.

차츰, 이게 현실이라는 확신이 소름돋듯 끼쳐왔고, 가끔씩 멀리서의 쉿소리와, 아주 낮은 굉음들, 전깃불 지직이는 소리 이외에는 들리지 않았다.

주위를 둘러볼 경향이 생겨서 보니, 핸드폰은 왼편의 돌무더기에 깔려 화면이 가루가 되어 있었고, 내가 겨우 쭈그려 앉은 공간은 앞, 뒤, 옆으로 돌무더기에 바짝 막혀 있었다. 무릎 아래로는 감각이 없었다. 팔을 뻗을 정도의 공간도 없었고, 카페 로고 간판은 애매한 ‘ㅅ’자 모양으로 꺾여서, 내 정수리 뒷쪽에서부터 하향-대각선으로 뻗어 나가 주민 씨의 턱 밑을 정확히 찍어누른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대형 체인점의 큼지막한 카페 로고 간판은, 쏟아지는 돌무더기를 막아내서 나를 살렸지만, 불쌍한 주민 씨의 목 위로 그대로 꽂혀서 주민 씨를 죽인 것이었다.

카운터 뒤에서 거대하게 빛을 발하던 로고 간판.

발이 아프다며 스툴에 앉아 앞치마를 툭, 툭 털던 주민 씨.

내 손목시계는 03시 01분에서 멈춰 있었다.

건물이 무너졌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 밖에는 이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게 아니라면, 이게 꿈인가 보구나. 그런데 아까 분명히 나는 이게 현실이라는 확신을 했더랬다. 그렇다면 역시나 건물이 무너진 것인가 보다. 이상한데. 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와서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죽은 주민 씨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죽은 주민 씨의 턱에서 말라붙다 만 피 한 방울이 똑 떨어졌을 뿐, 미동도 없었다. 죽은 사람이 웃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그 웃음소리도 내 입에서 새어나온 것이리라. 그렇구나, 하고, 다시, 흐흐, 하는 웃음소리가, 흐흐, 하는 울음소리가 될 때까지, 건물이 무너졌다는, 가설 같은 현실을, 차츰 곱씹었다.

그리고 죽은 채로 뒤집어진 채로, 카페 체인점 로고 간판의 밑단에서 머리를 비죽 내민 채로, 휘둥그레한 표정을 간직한, 주민씨와, -내가 내려다 보고 있는 지점에서 정확히, 뒤집어진 거울처럼 나를 올려다 보고 있는, 주민씨와, -눈을 맞추고 말했다.

“건물이 무너졌나봐요, 주민 씨. 주민 씨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나는 무릎이 나간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을 내가 한 게 맞던가? 주민 씨의 입이 움직인 것만 같았다. 죽은 사람이 말을 했을 리가 없는데... 주민 씨의 입술은 그새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다. 카페 옆의 화장품 가게에서 코랄 립틴트를 사왔다고 자랑했었는데, 립틴트가 여전히 얼룩덜룩 발라진 입술은 군데군데 녹슨 청동빛을 띄고 있었다. 주민 씨는 분명히 죽은 것이었다. 그런데,

“건물이 무너졌나봐요, 주민 씨.” -그 말을 내가 한 게 맞던가? 주민 씨의 입이 움직인 것만 같았는데, 죽은 사람이 말을 했을 리가 없는데...

“건물이 무너졌다면,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곧 구조대가 올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응? 누가 올 거야. 주민 씨, 조금만...” 아아, 그런데 이마저도, 주민 씨의 반쯤 벌어진 푸르고 불쌍한 입술에서 나온 말인 것만 같았다.

“제가요, 말을 했다고요, 희로 씨,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희로 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라고, 심지어는, 죽은 주민 씨는, 심지어, 자신이 말을 하지 못하는 처지임을, 굳이 기어이 덧붙이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건조해져 가는 눈동자의 동공이 탁해지고 흐려질 때까지 나를 휘둥그레 응시하며 내 이름을 부르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희로 씨, 희로 씨, 하고, 계속...

단정한 앞머리에 단발머리인 주민 씨는 게다가 나와 머리 스타일까지 똑같아서, 게다가 뒤집어진 상태에서는 얼굴이 분간이 잘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 하얗고 빨간 간판 조명을 은은히 받으며 점차 파리하고 소산하게 변색해 가는 주민 씨의 얼굴을 내려다 보면서, 희로 씨, 우리 수강신청 며칠 남았어요? 그런데 희로 씨, 저는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희로 씨, 저, 이제 수강신청도 못하고요, 네?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요? 네? 희로 씨! 왜 말을 못해요? 말을 좀 해봐요! 희로 씨! 네? - 하

다가, 아, 역시나, 주민 씨, 주민 씨가 한 말은 아니었나 보군요, 역시나, 아아, 이건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꿈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나는 - 가만, 나는 아까 이게 분명 현실이라는 걸 분명히, 분명히 확신했는걸...

“건물이 무너졌나봐, 주민 씨. 구조대가 오겠조? 그런데 주민 씨는 괜찮아요? 저는... 무릎이 나간 거 같은데.” 그러고서 내려다보니, 주민 씨의 희멀겑게 탁해진 눈동자에 눈물이 그렇그렇 맺혀 있었는데, 희로 씨, 울어요? 울면 안돼요, 뚝. 왜 울어요. 울어야 할 사람은, 희로 씨가 아닌 거 같은데. 희로 씨가 울면 나도 울어요, 뚝, 뚝, 툭, 툭, 그만 울어요. 뚝, 그쳐요, 내 눈에서 눈물이 자꾸 그 눈 위로 떨어지고만 있는 것이었다. 아, 휴학 연장 해야 하는데..., 이거 원, 시간이고 날짜고 알 수가 있어야지, 밤인지 낮인지, 작년인지, 내년인지..., 희로 씨, 그런 걸로 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생각보다 여린가봐. 주민 씨의 창백한 볼살 위로 파랗게 싹틔줄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 꼭 눈물의 실개천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포스 기계를 툽, 툽, 뼉 - 하고 찍는 소리들이, 진동벨의 위잉- 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 이거 환청이조? - 희로 씨가 그랬잖아, 건물이 무너진 게 현실이라고 확신했다며요. 그럼 구조대가 오는 소리 아니겠어요? 아니면, 일하다가 깜박 잠이 들어서 이게 지금 다 꿈인 것일지도 모르지? 희로 씨? 왜 울어요? 구조대가 오는 소리라면, 기쁨의 눈물인가요? 희로 씨! -네? -네?

“구조대가 온다 해도, 주민 씨는 이미 -”

왜 말을 안 해요, 희로 씨? 대답을 좀 해 봐요! 뭐라고라도 말을 좀 해 봐요, 빨리... 아, 진짜,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나봐?

“이미 -”

축축하고 괴기스러운 소리를 내며 주민 씨의 입이 벌어지고, 역한 냄새가 진동하고, 검붉은 끈적이는 액체가 스며 나와 나의 무릎을 적셨다. 아, 희로 씨, 미안... 이게 뭐지..., 에이, 부끄럽게. 툽, 툽, 뼉 - 포스 기가 고장났나봐. 고치러 가야겠는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원... 툽, 툽, 뼉 -

토했어요? 그랬나봐, 미안해요. 허벅지를 덮은 앞치마와 돌먼지가 토사물로 온통 뜨끈했다. 불쌍한 주민씨의 얼굴도, 이 악취는 대체 어디서... 아, 내가 토했나봐요, 미안해요. 쉼의 냄새가 진동해. 일단은 진정하고 뭐라도 좀 마셔야겠다, 다시 정신이 들었다, 이게 현실이라고 나는 분명히 확신했었지. (손등을 꼬집어 봤다. 아프다. 움직이지 못한 채로 너무 오래 있어서인지, 온 몸의 근육이 당기고 아프다. 그래, 이건 현실이로구나. 이건 현실이야, 희로야.) 이게 현실이라면...

“건물이 무너졌나봐요, 주민 씨.” 주민 씨의 뒤집어진 얼굴은 이제 푸른 싹틔줄이 한가득 피어올랐고, 군데 군데 자홍빛 반점이 피멍처럼 맺혀 있었고, 악취가 났고, 입가에 검붉은 액체가 스며나온 데다가, 분명히 죽어서 심지어는 부패해 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희로는? 일단은 진정하고 뭐라도 좀 마셔요, 희로 씨. 목이 바싹 말라서 소리가 잘 나지 않았다. 그런데 마실 만한 게...,

없다. 카페에 마실 게 없다니, 이게 현실일까? 카페는 음료를 팔아서 운영하는 곳인데? 글썄, 건물이 무너진 게 현실이라면, 이것도 현실일 수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희로 씨? 목이 마르다. 그렇다면 이건 현실이다. 손등을 꼬집어 보니 아프고, 온 몸의 근육이 당기고, 무릎에서도 다시 나직이 욕신거리는 통증이, 둔탁한 통증이..., 게다가 목도 마르다니, 아아, 더할 나위 없이 이것은, 현실이야. 그렇다면,

“아픈 걸 보니 이건 현실이 맞는데, 이게 현실이라면, 건물이 무너졌나봐요, 주민 씨. 주민 씨는... 아픈 데 없어요?”

아픔? 아픔이 뭐예요, 아픔이 뭐조... 하며 주민 씨의 입술이, 그 푸르다 못해 검게 변해버린 입술이, 입가가 쉴룩였다. 앗, 정말, 정말로 입가가 쉴룩였다. 그리고 하얀 쌀밥처럼 생긴 것들이 오물오물 찹찹뚱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마실 것이 없다면, 이거라도...

일단은 진정하고 뭐라도 좀 먹어요, 희로 씨.  
현실이로구나. 구더기를 씹으며 되뇌었다. 현실이로구나.  
“차라리 내가 죽을 걸 그랬어요, 주민 씨. 차라리 내가.”  
“아니지, 오히려 이 편이 나을지도... 아아, 저 너무 아파요.”  
“건물이 무너졌나봐요, 주민 씨. 괜찮아, 구조대가 올 거야.”  
“주민 씨는 아픈 데 없어요?”

“네? 뭐라고요? 희로 씨? 뭐라고 했어요? 방금 무슨 말 했어요?”

정신이 좀 들어요? 뭐가 보여요?

손가락 두 개를 눈 앞에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

“손가락 몇 개 보이세요?”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점장님이 이번에는 손가락 세 개를 눈 앞에 들어보인다.

“희로 씨, 손가락 몇 개 보여요? 좀 괜찮아요? 아휴, 어찌나 걱정했는지... 저 알아보시겠어요?”

목이 여전히 타들어가고 있다. 팔에 수액 꽂혀 있고, 기계들이 툽, 툽, 뼉- 소리를 내고, 병원인 듯하다, 벽면 TV에는 <속보: 건물 붕괴 현장서 시신 3구 추가 발견... 생존자 없어> 라는 글자들이, -그렇다면, 이건 현실인가?

“점장님, 건물이 무너졌나봐요, 주민 씨가...” 그런데,

점장님은 주민 씨의 이름을 듣더니 갑자기 낮빛이 창백해지고, 온 몸을 미세하게 떨기 시작한다. 그리고 간호사와 의사에게 눈짓을 한다. 간호사와 의사는 의심과 불안감 가득한 눈초리로 나를 보고서, 점장님을 보더니, 둘을 좀 번갈아 보다가, 이내 수궁하듯 가볍게 목례를 하고서 밖으로 나간다. 살짝 여닫는 문의 틈새로 경찰들이 웅성이는 모습이 보인다.

불현듯,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으며,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잘못된 채로 이어져 왔다는 느낌이, 뺏속으로부터,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환원불가한 감각만큼이나 확실하게, 소름 돋듯 끼쳐왔다.

“점장님, 저... 속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점장님은 별안간 만면에 화색이 돌더니, 아주 들뜬 표정으로, “구더기로 연명한 사람이 할 소리야? 이 사람아!” 하면서, 내 머리를 한 손으로 마구 형클어뜨리는 것이었다, 기다려 온 대답을 이제서야 들었다는 듯이, 내가 매우 대견스럽다는 듯이, 드디어 네가 해야 할 말을 했구나, 라는 표정으로! 나는 영문을 도무지 모르겠어서,

“저... 구조된 거예요? 주민 씨는 어떻게...”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타는 목을 괴물처럼 징그러운 소리 겨우 나도록 쥐어짜면서 물었다. 그러자 점장님은 여전히 아주 기쁜 표정으로, 날아갈듯한 표정으로, 한달음에 병실 문으로 뛰어가서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내 병상으로 오더니, 내 귓가에 대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한참 속삭이는 것이었다. 외국어가 아닌데, 외국어 같은 말들을..., 그러다가, 그래서,

“...알겠지, 희로 씨? 보험은 처리 됐고, 해고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건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

갑자기 간호사가 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다 들었다는 듯한 얼굴로 점장님을 향해 눈을 흘기고선 다시 문을 닫는다. 점장님은 놀라지 않은 척, 아무 반응을 앓았지만, 바짝 붙어 있었기에, 나는 그만 점장님의 심장박동이 흉곽에서 터져나올듯 북받쳐오르는 소리를 듣고야 말았다.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나를 다시 마주한 점장님의 눈빛은 절망으로 흥건했다.

“그 트라우마를 안고서 일터에 복귀시키는 건 우리가 희로씨에게 못할 짓인 것 같아서 그래. 이해 하죠, 알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치유에 전념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점장님이 갑자기 다 무너져 내리는 표정을 하더니, 내 머리를 감싸안고, 겨우 알아들을 정도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 귓전에 속삭였다, 지상 최대의 비밀을 몰래 알려주듯이, 절대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알려주어서는 안되는 비밀 처럼...

“내 이름도 원래 주민이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점장님이 울음을 터뜨리던 그 시점에서 갑자기 나도, 속에서 무언가를 게워내 듯이,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다. 점장님의, 흐르지 않는 눈물을 고덕고덕 집어삼키는, 그 울음에 오르내리는 젖가슴에, 파묻혀서, 나도, 엄마라는 보편명사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처럼, 목 놓아 울었다. 내가 왜 울고 있는지도 아리둥절한 채로. 그걸, 그 결정적인 걸 내가 알아채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야속함이 더욱 돌고 돌아 사무쳐서, 사무칠수록 내가 왜 이러는지를 더더욱 도무지 모르겠어서, 그럴수록 사무치고 사무치기에 더더욱 차마쳐서, 점장님과 나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울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간호사가 문을 뚫어 열어젖힌다. 딱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결연하기까지 한 눈빛이다.

“신원확인하러 같이 잠시 내려가 주시겠어요? 가족이 연락이 안 돼서...”

점장님이 그새 밝은 얼굴을 덧칠하고 뺨뺨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나도 덩달아 일어나려는데, 발끝에서 척추까지 벼락이 내리꽂히듯 무시무시한 통증이 솟구쳐서, 나도 모르게, 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어어, 환자분, 안 돼요. 무릎이랑 고관절이랑 인공관절 수술 한지 얼마 안 돼서요. 그대로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대로. 안정 취하고 계세요.”

간호사와 점장님이 나가며 여닫은 문틈으로, 아까의 그 경찰들이 나를 한번이라도 더 구경하려고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기웃거리며 웅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텅 빈 병실에서 TV를 보며, 주민 씨의 시신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로 수습되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몇 날 며칠씩이나 우리의 지붕이자 감옥이 되어 주었던 대형 카페 체인점 로고의 간판은 수습 과정에서 부서져 파손된 잔해로만 남아 있었다. 추가 수습된 시신은 여전히 3구, 생존자는 여전히 0명이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생존자가 1명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시신은 3구, 생존자는 1명인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살아 있는 것이 맞는가? 기억이 나는 만큼 더듬어, 주민 씨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나에게 먹을 것을 게워내어주던 일그러진 입매무새...

복도에서 점심 식사를 담은 카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구미 당기는 밥냄새가 풍겼다. 문득, 밥다운 밥을 먹은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뺨속에서 태풍이라도 몰아치듯 우뢰소리가 일었다. 입에서는, 오랜 가뭄을 잠재우듯, 장마처럼, 군침이... 그리고 문이 열리고, 카트가 덜컹이며 문간을 넘었는데,

카트를 밀고 온 간호사가 접이식 테이블을 펼쳐 트레이를 올려놓고 상을 셋팅해 주고 있었다. 김이 눈에 보일 정도로 한껏 피어오르는 국그릇을 홀린 듯 바라보는 나를 간호사가 한참 쳐다보는 것이 느껴져서, 고개를 들어서 보았는데, 어어,

간호복을 입은 저 사람은, 주민 씨가 아닌가! 그것도, 썩거나 죽기 전의, 살아 생전의 주민 씨 모습, 새로 산 코랄 립틴트를 예쁘게 바르고, 단정한 앞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내린...!

우리는 서로를 한참 말없이 응시했다. 주민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리고 나직이 속삭이기를, “진짜를 진심으로 간직하려면, 때로는 가짜가 될 것도 각오해야 해요...”

그러면서, 간호복을 입고서 살아 온 주민 씨는, 갓 수술한 흉터자국이 반창고 틈새로 보이는 내

무릎을 가리키는데,

아, 나는 너무나 반가우면서도,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서, 또 한편으로는 참 무섭기도 해서,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주민 씨! 말이 말 같아야지...”

마구 소리지르며 윗몸을 일으키는데, 마비될 정도의 통증이 온 몸을 콕 찌누르는 통에, 괴성을 내  
뱉고서 다시 뒤로 쓰러져 누웠다.

그러고서, 못 볼 것을 보았다는 듯 부랴부랴 도망치듯 카트를 밀고 나가는 주민 씨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주민 씨의 목덜미에 이상한 금속의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건물 잔해에 함께  
갈렸을 때, 주민 씨의 시신이 카페 체인점의 대형 로고 간판에 짓눌렸던, 바로 그 부위였다.

벽면 TV위의 시계는 빨간 LED 숫자로 03시 01분을 나타내고 있었다.